

# 온실가스 감축분 선진국에 판다

## 광주시 '청정 개발 체제' 사업 추진 운정동 매립장 메탄가스 방출 줄여 年 6만t ... 5년간 31억원 수익 예상

광주시가 쓰레기 매립장·하수처리장·음식물자원화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메탄 등 온실가스의 방출을 줄이는 대가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 선진국에 판매하는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을 추진한다.

CDM사업은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도료의정서가 규정한 온실가스 감축협력사업으로 감축의무를 갖고 있는 선진국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해 그 감축실적을 자국의 의무이행에 활용 할 수 있으며, 개도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선진국에 판매할 수 있다.

광주시는 24일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해 3MW급 발전시설을 돌리는 한편,

온실가스인 메탄가스의 대기중 방출을 줄이는 것을 인정받아 선진국에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교토의정서가 규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구온난화 물질중 하나인 메탄가스(매립가스 중 50% 이상 함유)를 감축하고, 그 감축분에 대하여 국제적인 인증기구인 기후변화협약기구(UNFCCC)의 CDM 집행위원회에 등록을 거쳐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운정동 매립장 발전시설을 운영 중인 (주)서희건설과 CDM사업 공동참여 협약을 체결했으며, 내년 8월까지 정부 승인과 UN산하 CDM사업 집행위원회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이에 따른 매립가스 감축량은 연간 6만t 규모로, 향후 5년간 31억원의 배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선진국인 A국이 개발도상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 된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도국이 단독으로 투자해 얻는 감축분도 선진국에 판매 허용.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권거래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권거래 허용하는 제도.

출권을 선진국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에 대해서도 CDM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UN에 공식 등록된 CDM사업은 총 645건으로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급증하고 있다. CDM 사업은 에너지산업 부문이 438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폐기물부문으로 184건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관매립지 매립가스자원화사업을 포함해 총 13건의 CDM사업이 UN에 공식 등록(화학산업분야 3건, 에너지산업분야 9건, 폐기물분야 1건)된 상태이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무등산에 수박 가져오지 마세요”  
계곡 등서 집중 단속

광주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가 올 여름 무등산 계곡에서 수박껍질이나 음식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관리사무소는 이를 위해 4개조 1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음식쓰레기 투기를 집중단속하는 한편, '수박 안 가져오기 운동'도 전개한다. 관리사무소는 또 무등산 계곡에서의 수영·세탁·목욕 행위 등도 엄격히 단속한다.

관리사무소는 수박 껍질 등 음식물 쓰레기를 투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 동북호 효율적 수질관리 위해 조류제거선박 도입해야

광주시민들의 식수원인 화순 동북호 유역에 대한 조류(藻類)주의보가 지난 2004년에 이어 올 해로 두 번 재발령했으나 조류 예방 및 제거에 필수적인 '조류제거 전용 선박'이 없어 효율적인 수질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동북호 중류 및 하류 일원에 1천150kg의 살조제(황산동)를 살포하는 등 조류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황산동'이라는 화학약품의 살포는 논란이 있는데다, 조류주의보 발생과 함께 시민들이 생수를 사먹는 등 수돗물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조류제거선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시가 매년 동북호 물 부담금 98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영산강환경유역청이 조류제거선 구입비 5천200만원과 연간 운영비 1억여원 등을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시는 조류제거선 이용이 친환경적인데다,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각종 오염원을 제거하는데도 쓸모가 있어 상수원관리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23일 살조제 살포로 조류를 잡았고, 수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서도 "이상 고온으로 급증하고 있는 조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장비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앞서 지난 20일 동북호 유역에 조류주의보를 발령했다. 조류주의보는 클로로필-a 농도가 m당 15~25mg에 달하고, 납조류 세포가 m당 500~5천 마리를 초과하는 경우가 2회 연속 발생하면 발령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김치는 문화다 김치축제 주제 확정

광주시는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김치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갖고 '김치는 문화다'를 주제로 5개 부문 35종의 프로그램을 확정하는 등 구체적인 추진안을 마련했다.

특히 올 김치축제는 '한국의 대표문화인 김치를 세계인의 건강지킴이'라는 브랜드 개념을 설정, 한국문화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보여 줄 계획이다.

북구 중의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개막식 '김치선언'을 시작으로 김치오감(五感)박람회, 종갓집 김장하는날, 김치테마예술공원, 김치 스트리트 등 5개 부문 35가지의 세부 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이다.

민속박물관에 설치될 김치오감 박물관에는 '한국 김치, 세계 김치 비교전'을 비롯 김치의 역사와 문화, 김치퓨전 포장마차 등이 전시·운영된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김치축제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광주시 북구 중의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범위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다음달부터 광주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광주시는 24일 "택지개발과 도로 건설, 산단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적용됐던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지역환경영향평가 조례가 다음달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을 비롯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단 조성, 체육시설 등 12개 분야 39개 사업이며 각각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동·식물, 지질, 수질, 토양 등 20여 개 분야에서 환경에 영향을 주는 지역

부를 평가 받아야 한다.

택지개발의 경우 현행법상 30만㎡ 이상 때만 받도록 돼 있으나 15만㎡ 이상이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건설은 2km 이상, 산업단지 개발은 7만 5천㎡ 이상이면 평가를 받도록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부 국가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미달한 사업의 경우 환경훼손이 심각할때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무분별한 사업 추진과 개발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광주향교 예절교실에서 24일 학생들이 '다도(茶道)'를 익히고 있다. 광주향교는 지난 23일부터 초·중·고교생을 위한 무료 한문·예절교육을 시작해 오는 8월 24일 까지 1개월간 계속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지역 일선 학교 10곳 중 1곳에서 인체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가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초·중·고교 152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내 실내공기 질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1개교, 고등학교 14개교, 기타학교 1개교 등 모두 16개교(10.5%)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100μg/1m³)보다 많이 검출됐다.

## 광주 초·중·고 10곳 중 1곳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초과

이들 학교는 대부분 신설되거나 학교 건물 일부를 신축 또는 증축한 지 3년 이내인 학교들이다. 검출량은 학교별로 130μg/1m³~170μg/1m³에 달했다.

새학교증후군의 주범으로 꼽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기준치(100μg/1m³)를 초과한 학교도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6개교(3.9%)로 나타났다.

이외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기준치(1,000ppm)를 넘어선 학교가 무려 97개교(63.8%)에 달했고, 미세먼지가 기준치(100μg/1m³)를 초과한 학교도 34개교(22.4%)였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환기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며, 미세먼지 과다 검출은 청소를 게을리한 결과라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생활안내		신고
<b>교통안내</b>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b>가정법률상담소</b> 보건복지위원회 상설상담소 671-4050 광주 YWCA 527-0011 <b>24시간 청소년상담</b> 국민안심 1388 <b>국세종합상담센터</b> 국세청 1588-0060 <b>병무민원상담</b>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b>소비자 상담</b>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부고급 232-0643-4 소비자지원센터 369-9881	<b>학교폭력</b> 국민안심 226-0112 전남경찰청 233-2828 <b>광주지법</b> <b>사이버대리</b> 021118 <b>가정폭력</b> 여성긴급 국민안심 1366 여자경사기동대 363-0155 광주 여성지원화 363-7739 광주 남성지원화 673-9001 <b>광주이동학대예방센터</b> 국민안심 1391 <b>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b> 국민안심 1389
<b>상담</b> 당직번호(25일) 233-5050 산동호 233-5050 <b>법무사회 법률상담(25일)</b> 오정석 370-0600		

###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다이어트·한의원·조부·허리디스크  
 <4시간 100% 체중감소, 체지방률 10% 이상 감소>

NAVER 검색창에 **지리산한약방** 을 쳐보세요

문의 10621531-3636, 531-0700  
 523-0800, 011-9612-5530

###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방열도 높고, 설치비용도 절감되는 난방 시스템입니다.

1.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시스템입니다.  
 2. 방열도가 높고, 설치비용도 절감되는 난방 시스템입니다.  
 3.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시스템입니다.  
 4. 방열도가 높고, 설치비용도 절감되는 난방 시스템입니다.

(주)태양상시 TEL 10621282-0101

## 베트남 국제결혼

지금 당신의 신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오자이 국제결혼이 합니다.

본사만점 정보  
 1. 베트남 여성들의 아름다운 외모와 건강한 체질을 자랑합니다.  
 2. 베트남 여성들은 친절하고 정중하며, 가정에서 남편을 잘 돌보아줍니다.  
 3. 베트남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교육 수준도 높고, 문화적으로도 개방적입니다.  
 4.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 남성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결혼 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 062)232-8966  
 010-5256-8966